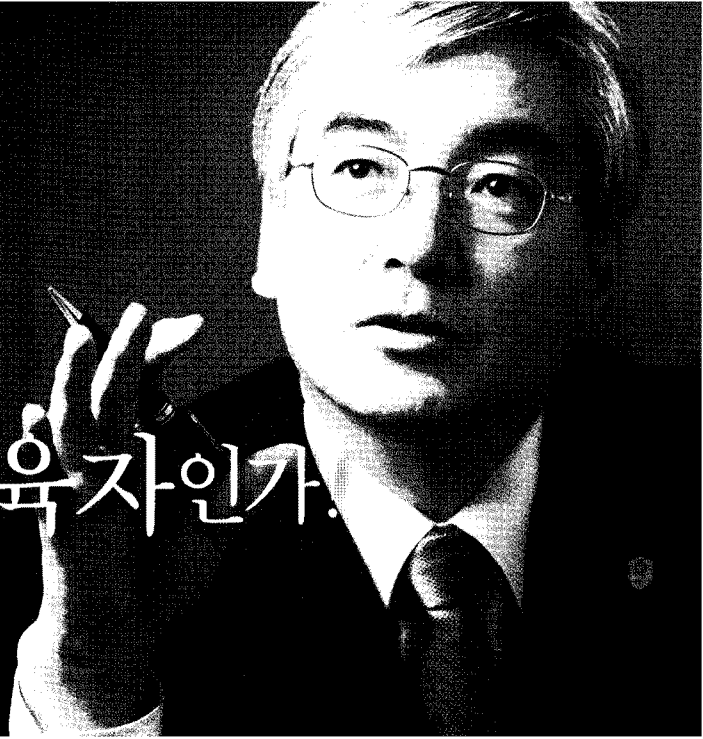


총장칼럼

# ‘나’는 과연 살아있는 교육자인가?

김승태 | 안양대학교 총장



교육(教育)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으로서, 한자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투적인 말과 논리로 아까운 지면의 낭비는 피하고, 교육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 함께 가슴 치는 반성의 의미를 공감해 보고자 한다.

안양대학교에는 그 어느 대학에도 없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living’을 가르치기보다 ‘life’를 가르친다. 그것은 위대한 ‘한구석밝히기’ 정신으로서 ‘나’ 자신이 서있는 자리, 지금 이 순간, 밖으로 향해 있는 의식을 안으로 들여와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절박하게 깨닫게 한다. 이러한 ‘한구석밝히기’ 정신은 남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 안에 감춰진 위대성을 깨닫게 하여 자기변혁을 이룩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한구석밝히기’란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말은 바 소명을 다 하며, 절박하게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찬란함을 발현하여 최상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정신이다.

나는 대학 총장이며 교육자로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를 늘 화두로 잡으며,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우리 안양대학교에서는 ‘한구석밝히기’ 정신을 기초하여 단순히 지식과 정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자 한다. 그 노력의 대가로 나날이 안양대학교는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있을 즈음, 내면적으로는 통렬한 자기성찰이 요구되기도 한다.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교육자로서 만족해야 하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더 나아가 세계인에게까지 전파하려는 ‘한구석밝히기’ 정신이 진정으로 바탕삼아 살아 있는가? 를 안으로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작 안양대학교 총장인 ‘나’ 자신과 내부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대한 ‘한구석밝히기’ 정신을 스스로 체득하지 않고, 밖으로만 외치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 뼈를 깎는 반성을 시작하게 된다. 학교에는 세 부류의 집단이 있는데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이 있다. 예외 없이 안양대학교도 이와 같은 구조에 속한다. 보편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학교조직을 혼자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포자기 심정과 여러 각도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 이제까지의 구태와 관행을 애써 눈감고 모른척한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나는 과연 총장으로서 모든 구성원의 수장으로서 학교와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며, 우리 학생들의 내부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하고 있어" 변명을 해보지만, 어김없이 저 깊은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며 초라함을 느낀다.

이러한 질문은 다각도의 측면에서 공간적인 통찰과 바른 정신세계로 이끌겠다는 굳은 신념과 함께 작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큰 것은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답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안위와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을 이룩해야하는 '한구석밝히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이라는 어휘를 현장에서 실현해야하는 교육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교육기관에 몸담으려면 그 소명을 명료하게 알아 실행해야만 한다. 즉,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내부적 성숙을 이끌어 풍성한 'life'의 여건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룰이다.

이에 우리 안양대학교는 각자 '나'자신부터 뼈를 깎는 대변혁을 이루기 시작한다.

'나'는 '한구석밝히기' 정신에 진정으로 입각하여 한 대학을 맡은 수장으로서, 밤낮으로 총장의 역할을 다각도로 탐구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저항과 항변에 오로지 학교와 학생을 위한 제도인 것이 확신이 들 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또한 독단으로 흐르지 않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은 물론이요, 규정과 규칙의 재정비와 낙후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 또한 안양대학교의 2020 플랜, 명문화,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여 차분히 준비하며 조직개편을 해 나간다.

이에 독이 터지는 개혁의 기틀이 마련되어가자 조직에 새로운 순풍이 불기 시작한다. 극심한 매너리즘과 저항에 명분의 김이 빠지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를 통감한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행정직원은 학생과 교수자의 교육서비스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텅 비어있던 도서관이 학

생들로 차오르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내부 구성원은 뇌우고 밖으로만 떠돌아대던 '나'자신의 빈 강통 모습에 피토하는 심정의 놀라움에 고막기까지 하다. 그러한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대학총장으로서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도취되어 대접받기만을 바랄 것이다. 이전까지 모른척하며 눈을 감고 지내던 걸치레 현상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나', '너' 할 것 없이 학위를 받고 대학에 몸담게 되면, 이상하게도 몇몇 깨어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갇히고 답답하게 되어 권위적으로만 간다. '나'의 눈은 생리적으로 자신의 눈을 볼 수가 없고, 남을 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눈의 생리적인 현상에 지배되어 자신을 돌이켜 보기보다는 남을 바라보는데 익숙하며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자로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나'자신의 처절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변혁을 이루어 주변의 관계를 변혁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한구석밝히기' 정신이 나를 언제나 일깨우며 몸으로 실행하게 한다.

나는 즐기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언제 있는가?

'나'는 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나'란 존재는 자신의 한구석을 찬란히 밝힐 때만 진정으로 살아 있다!

1982년 경희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 Molinaro/Rubin Associate, PA 지역개발 자문위원을 거쳐 1995년 안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2000년 동 대학교 부총장을 역임 후, 2002년 안양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한구석밝히기 실천운동본부 총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